

“우리 전통 널리 알리고 실력있는 예술인 양성에 최선”



‘제19회 대한민국 전통예술무용 연희대제전’ 명인·명무부 종합대상(국회의장상)을 수상한 백봉선씨와 유명숙 이사장(오른쪽).

남도전통예술진흥회 ‘19회 전통예술무용 연희대제전’ 성료

150여명 참여…종합대상에 무용 부문 백봉선씨 등 영예

‘제19회 대한민국 전통예술무용 연희대제전’ 명인·명무부 종합대상(국회의장상)의 영예는 무용 부문 백봉선씨가 안았다.

(사) 남도전통예술진흥회와 광주 남구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 등이 주관한 ‘2025 제19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무용 연희 대제전’이 지난 22일 광주 전통문화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전통예술무용·연희대제전’은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루고 인재발굴과 후진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1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경연은 학생·신인·일반·명인부로 나뉘어 치러진 가운데 약 150여명이 참가해 각고로운 기량을 발휘했다.

경연 결과 명인·명무부 종합대상(국회의장상)에 무용 부문 흥청무보준회 소속 백봉선씨가 ‘출생전’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백씨에게는 상장 및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됐다.

또 일부분 종합대상(문화체육부장관상)에 무용 부문 최우수상, 연희 부문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에 정지하 씨가 선정됐다. 학생부 종합대상(교육

부장관상)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학년 정주영 학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취득했다.

그외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에 많은 참가자들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유명숙 이사장은 “대한민국 전통 예술 무용연희 대제전’을 2001년부터 19년째 매년 빠지지 않고 열어 왔다. 유행도 실력 있는 참가자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성황리에 잘 마무리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전통을 널리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참가자 및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 남도전통예술진흥회는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루고 실력있는 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됐다.

김다경 기자 alsqslsd194@gwangnam.co.kr

PEOPLE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재)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

광복 80주년 기념 글짓기 대회

(재)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 80주년 기념 청소년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가보훈부의 후원으로 선별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으로 민족 광복을 이루한 승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광복 80주년의 의미, 호국보훈 정신의 가치, 역사에서 배우는 국가 수호의 정신 등을 주제로, 초·중·고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근우 이사장(사진)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이 글짓기와 시낭송, 교육 활동을 통해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연구원은 최근 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나주시 다시면 일대의 양파농가를 방문해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일손돕기 행사를 열었다.

전남연구원, 농번기 양파농가 일손돕기 봉사활동

농촌 인력난 해소…취약계층 농가 양파 수확 일손 보태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최근 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나주시 다시면 일대의 양파농가를 방문해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일손돕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활동은 고령화·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농산물의 적기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연구원 봉사단은 약 1200평의 양파밭을 찾아 양파 수확부터 밭갈·선별작업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해 힘을 보탰다.

일손을 지원받은 농가는 “연구원 직원들의 도움으로 품질 좋은 양파를 장마철 전에 적기 수확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나주시 금천면 지역사회단체와 주민은 지난 4월말 금천면 죽촌1리 아죽마을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고 화상을 입는 등 큰 어려움에 처한 피해 가족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나주시 금천면, 화재 피해 복구에 따뜻한 손길

피해 가구에 625만원 전달

후원금은 총 625만원으로 금천면 기관사회단체 협의회 200만원, 금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365 배분사업비) 300만원, 죽촌1리마을 주민성금 125만원이다.

후원금을 전달받은 피해 가구는 “생각지도 못한 도움에 큰 위로를 받았다”며 “갑작스러운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막막했지만 이웃들의 후원금으로 다시 일어서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유지영 금천면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힘든 상황에 처한 소식을 듣고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웃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희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 서부경찰

‘찾아가는 SPO 면담버스’ 눈길

광주 서부경찰이 학교 폭력과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경찰버스를 운영해 눈길을 끈다.

서부경찰은 최근 광주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서구 금호동 일원에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청소년 절도, 도박,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SPO 면담버스’를 운영하고 24일 밝혔다.

이날 ‘찾아가는 SPO 면담버스’에서는 학교침입경찰관(SPO)이 경찰버스를 이용해 직접 현장을 찾아 학교폭력 예방 포토존 운영 및 VR 체험활동, 흥보부스, 흥보물품 전달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언어폭력·성폭력 등 4가지 학교 폭력을 주제로 진행된 VR 기기 가상 체험은 참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청소년 범죄예방 등을 위한 다양한 흥보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인사

광주시 ◇2급 △도시공간국 김준영

◇3급 △관광도시과 윤창모 △건축

경관과 박금화

◇4급 △신활력총괄관 고재희 △AI반도체과 김남희

△문화유산자원과 문진영 △경제정책과 설향자

△안전정책관 이덕민 △민주화운동·정신문화

△문화재보호과 이정훈 △민주화운동·정신문화

대학인재정책과 김영준 △정책기획관 김원웅 △노

동일자리정책관 박문한 △미래산업총괄관 박인구

△인사정책관 박인옥 △여성가족과 서해진 △문화

정책관 손은수 △총무과 양지은 △총무과 이수연 △

도시계획과 이정희 △5·18민주화운동·정신문화

총괄관 이정훈 △대변인 지상수 △세정과 김재량 △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과학기술 △콘텐츠산업과 조성

주 △돌봄정책과 김양미 △상수도사업부 김병석

△도로과 문종수 △건축경관과 부유리 △미래차산

△도로과 문종수